

2006년 연차보고서 이사장님 인사말씀(안)

1999년 12월, 이 땅의 딸들에게도 희망의 새천년을 선물하자는 마음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여성기금을 출발시켰습니다. 모든 시작에 힘과 열정이 넘치듯, 우리의 출발도 그랬습니다. 나눔과 기부라는 언어가 꽃을 피우지 못했던 시절, 여성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하지 않은 사회에서 '여성기금 1천억'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의 시민사회 공익재단이 여성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출발에 가장 풍부했던 자원은 사람이나 돈보다는 꿈과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흘렀습니다. 2004년 의정사상 유례없는 숫자의 여성 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하고, 2005년에는 여성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며, 성매매 및 성폭력 관련 제도가 개혁과 정책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6년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총리가 탄생하였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여성계의 팔목할만한 발전과 변화로 인하여 역사가 새롭게 기술되는 감동을 경험해왔습니다. 그야말로 21세기는 대한민국에서도 여성의 시대임을 입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UNDP가 발표한 '2006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전체 조사대상국 177개 나라 중 26위에 올랐으나,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53위에 머무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의원,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진출 비율이 모두 조사대상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실은, 한국사회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높아졌으나 그에 비해 사회적^{78m123} 지위나 권한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능력에 대한 편견과 기회의 불평등 구조가 사회적^{78m123}, 문화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의 여성을 위한 기부역사 7년을 기념하는 오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매순간이 시작인 것처럼

국제여성기성회

국제여성기성회

럼 눈부신 열정과 희망에의 실천의지를 다시금 일깨워야겠습니다. 산적해있는 여성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운동의 목표와 비전을 명확하게 정립하며, 여성의 눈으로 사회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다시 처음과 같은 에너지를 끌어 모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여성운동을 위한 기부문화가 척박한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들도 여성들의 새로운 노력에 동참할 것입니다.

기부문화의
행동등도
이루어지도록

행복과 희망을 성인지적으로 상상하고 생명과 평화를 여성주의적으로 정의하라

한국여성재단 또한 따뜻하고 한결같은 조력자의 모습에서 벗어나 여성주의적 대안으로 사회를 실천적으로 설계하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겠습니다. 행복과 희망을 성인지적 시각으로 상상하고 생명과 평화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정의하는 구체적인 실험들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를 개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동네 하나를 여성주의적 공동체로 만드는 것과 같이 실제 삶의 현장을 개선하고 조성하는 일들에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흔히 사회적 약자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가진 개인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집단으로 뭉뚱그려져 비하됩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 오히려 개별로 흩어지지 않고 집단으로 대응하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자는 영원히 약자일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대표적인 약자 집단이 다름 아닌 '여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여자들!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 세계를 움직이는 상상 속에 여성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